

東北亞 比較神話學 국제학술대회

丁 奎 福*

I

지난 1993년 5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학 동아문화연구소의 東北亞 비교신화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논의된 10편의 논문을 차례에 따라 필자의 소감을 적어 보기로 한다.

신화연구의 방법은 대충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본다. 즉, 하나는 신화가 지닌 원초의식을 중심으로 그것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두 나라 이상의 비교신화를 통하여 그것들이 지닌 특수성이나 전과과정을 통한 특수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화연구에는 위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회에서 발표된 10편의 논문은 보편성의 추구가 대충 6편, 특수성의 추구가 4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II

金榮華교수(대만 文化大)의 「神話省思三則」은 精衛填海·后羿射日·夸父追日 등에 내포된 신화의 의식이 民談으로 계승되고, 나아가서는 그 신화의 의식이 역사를 비롯한 전반 생활에 반영되어 있다는 신화의 본질적 구명을 살핀 글이다.

* 高麗大 명예교수

朱靖華교수(중국 人民大)의 「中國神話의 文雅化」는 중국신화가 서양의 것에 비해 복잡성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중국신화가 屈原에 이르러 그의 周遊天下에서 얻어진 신화의 체험을 통해 특히 그의 ‘天問’에서 신화로 체계화·역사화·예술화 등 文雅化하게 되었다는 屈原의 공헌을 강조한 것으로, 하나의 역사적 측면에 입각된 본진론적 추구를 취하고 있다.

樂黛云교수(중국 北京大)의 「中國洪水神話」는 大禹治水를 중심으로 기타 기독교 성경의 노아洪水등과 견주어 노아洪水의 징벌의식과는 달리, 중국 洪水神話의 특징을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安民의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역대의 唐太宗, 李太白 등 文人들의 洪水神話에 투영된 칭송을 통하여 중국의 民族魂으로 마무리지었다. 이는 신화의 기본이 지닌 원형을 통한 보편성의 추출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주의적 추구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鄭在書교수(한국 梨花大)의 「山海經의 不死神話·體系」는 「山海經」에 삽입된 神仙譚을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구분하려는 중국 중심적 연구를 지양하여 이를 不死神話로 규정하고, 마무리에서 孫作雲등 중국학자들이 山海經을 東夷系古書로 규정한 것을 들어 재음미를 요청해 놓은 것이 鄭교수에 의해 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湯一介교수(중국 北京大)의 「緯書中の 創世神話」는 중국 역사상 신화는 중국의 정치·사회·종교·사상의 발달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을 밝히고, 특히 본론의 주제인 創造神話는 서양의 것과는 달리 중국의 主體論이 부착됨을 힘입어 뒤늦게 三國時代의 ‘盤古開天地’ 신화에 이르러 정제된 創世神話가 정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충 중국 創世神話의 특징은 聖王이 언급된 정치적 신화라는 것이고, 특히 周易과 先秦의 宇宙哲學 구조의 이론과 부합된 것은 서양 희랍의 創造神話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언급한 것은 동서 創造神話의 비교의 하나가 된다고 본다.

총체적으로 볼 때, 湯一介교수는 그의 전공이 중국철학에 있으니까 신화의 해석법도 신화의 원초적 접근과는 달리 하나의 우주철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다.

王孝廉교수(일본 西南學院大)의 「西王母의 原相 ‘戴勝」은 西王母의 原相을 위해 푼 戴勝의 문제로 종래부터 있었던 戴勝의 새이름·사람 이름·악세사리 등을 중심으로 여러 문헌적 고증을 들어 西王母의 神異的 악세사리로 결론을 내린 글이다.

리프틴 교수(러시아 과학원)의 「射日神話 比較研究」는 대만 布農族 신화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독일의 Evkes와 何廷瑞의 연구와 더 추가된 자료를 원용, 그 내용은 射日神話가 古代 東아시아에서 발생되고, 이후 여러 민족에 의해 대만·비율린·인도네시아 및 太平洋의 도서 지방으로 전파되었다고 마무리된, 말하자면 신화에 대한 일종의 전파론적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黃涇江교수(檀國大)의 「夜來者 설화의 소설적 변용」은 주로 한국·중국·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夜來者 설화의 기본적 모티브를 세가지, 즉 ‘밤에 女人에게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찾아와 동침한다는 것’, ‘남자의 정체를 탐색·확인하는 것’, ‘출생과 관련하여 소생한다는 것’ 등의 융통성있는 구조밑에 다양한 풍토에 따라 전개되는 주제·전개 등의 변용의 소설화를 중심으로 夜來者 설화의 단일한 原初型的 추출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강평자의 생각으로는 문헌이 기왕 한국·중국·일본 등 東北아시아의 것이 망라되었으니만큼 이들의 민족문화적 특징을 추출하는 비교설화의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吉日敦彦교수(일본 學習院大)의 「Georges Duménil의 研究에 비추어 본 스키타이·韓半島 및 日本神話의 關係」는 프랑스의 비교신화의 개척자 뒤메질이 일찍이 그의 印歐語族의 전통적 사고체계에 의해 비교신화의 많은 업적을 이루게 한 방법을 적용하여, 이란 유목민의 한 파

를 이룬 스키타이를 중심으로 한국 및 일본의 사료 三國史記·三國遺事·古事記·日本書記 등을 자료로 하여 비교신화를 東아시아로 확대한 것은 東아시아의 비교신화학이 근원적으로 지닌 두가지 목적, 즉 원형상징적 보편성과 민족상징적 특수성을 아울러 풀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徐大錫교수(서울大)의 「한국신화와 만족신화의 대비」는 한국과 만족의 신화를 ‘국조신화’·‘무속신화’·‘영웅신화’ 등 셋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대비함으로써 두 민족의 문화적 특징을 추출해내는 시도로서 이는 비교신화의 방법이 구궁적으로 중요하게 안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특수성의 방법이라고 보아진다.

III

우리는 위의 글들에서 제시된 민족적 특수성과 원초적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東北亞 신화학 국제회의를 계기로, 특히 뒤메질의 ‘印歐語族의 세 기능 체계’에 의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東北아시아의 신화적 기원과 구조의 풀이에 한국·중국·일본 학자의 계속적인 연구와 가급적이면 공동연구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印歐語族에 속하는 이란계 유목민족신화가 알타이계 민족에도 수용되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일본으로까지 그 물결이 튀겨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